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 농업 · 지역사회 · 취업활동 중심으로 -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nd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양순미* · 최규홍** · 강경하***

Soon Mi Yang · Kyu Hong Choi · Kyung Ha Kang

Abstract

In the near future,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ected to be the majority of population living in the rural area, which is an aged and small-scaled society. Moreover, they are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the culture of agriculture and a rural commun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adjust and settle urgently as well as to develop a policy and social services for the adjustment and settl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social, and job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1 activities.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농업연구사. e-mail: ysm@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khchoi@korea.kr

*** 농촌진흥청 실용화 재단 팀장. e-mail: kangkhj@korea.kr

The following findings were established from this study.

First,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e in local soci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in a Korean rural area more frequently than in their own country. However, the frequency of their participation in job activity in a Korean rural area is lower than in their own country.

Second,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activity in a Korean rural area is to carry out childcare, household chores, and farming at the same time. Their low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job activity mostly results from their lack of fluency in Korean.

Third, married immigrant women score higher in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y and job activity than in agricultural activity.

주요어(key words) : 농촌(rural), 결혼이주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1. 문제제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총 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 10.9%, 2000년 8.7%, 2007년 6.7%로서 농가인구비율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은 적은 수의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농업인구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율상의 감소와 더불어 진행되는 규범적인 형태의 인구구조의 와해이다. 즉 절대적으로 적은 농가인구 중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

계 농업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젊은 연령층의 결혼이주여성과 2세대 아동들을 포함하는 이들 가족은 농촌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과소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후계 구도를 유지하며, 그리고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유도할 핵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농촌·농업의 유지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양순미, 2006b)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온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한계성, 프로그램 참여대상의 중복성 및 제한성, 실행체계의 혼선 등의 문제(김갑현, 2007 ; 양순미·한춘희·양점남, 2009)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당면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통합과 지속적으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erry(1987) 등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참여활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사회참여활동 실태나 이것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에 있어서 참여 실태와, 요구, 애로사항, 이들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변화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인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사회참여활동의 개념

사회참여활동(social participation activity)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인간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해 간다(Rowe & Kahn, 1998). 따라서 사회참여활동(social participation activity)은 취업활동,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 활동을 포괄한다(박정은, 1994)고 할 수 있다.

사회참여활동은 참여수준에 따라 공식적 참여, 준 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활동은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전체사회의 운영 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제주발전연구원, 2006).

한편 활동(activity)은 크게 일(work)과 여가(leisure)로 구분할 수 있다. 일은 의무적이고 시간제약적인 반면에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의 활동으로서 임의적이다. 일과 여가의 구분은 활동의 의무성과 임의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며 상대적 의미에서 구분될 뿐이다. 또한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육도 주요한 활동이 되었으며, 교육은 일이 되기도 하고 여가가 되기도 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케 하며 타인과의 상호 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농업활동, 취업활동, 지역사회활동을 포함하는 일

련의 행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농업활동이란 농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취업활동은 고용을 통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는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일련의 활동을, 지역사회활동은 봉사·교육·단체 활동 등의 비공식적이거나 준공식적인 성격을 지니는 일련의 활동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관련 현황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순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55.3%가 본인의 집의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의 집과 다른 집 모두에서 농사일을 경험한 경우는 7.6%, 임금을 받고 다른 집 농사일만을 경험한 경우는 6.8%, 본인의 집이 농사를 지으나 농사일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11.6%, 본인의 집과 다른 집 모두에서 농사일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7%이었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은 대부분 교육지원에 편중되어 왔으며, 그 효시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20여 개소에서 운영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 할 수 있다. 이어 농림부가 2007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소에서 찾아가는 방문도우미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2007년에 여성가족부는 농림부의 사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하여 전국 80개소로 확장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역시 내용적으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에 따라 우리말과 글에 치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화체험과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

한 주제의 강연이나 요리실습, 또는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업을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해 왔던 경험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지역이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매우 한정적인 수밖에 없다(김갑현, 2007).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시스템들은 농촌지역의 교육수혜의 사각지대화, 거리접근성의 한계, 과소화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사회의 인력구도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이들을 인적자원화하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양순미, 2006b; 양순미 등 2009).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들 대상국은 2007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을 비교하여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08년 8월 25일 부터 9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 중 전국 9개도 46개 시·군 50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에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10여

부의 응답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91명,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74명,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 77명,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86명, 캄보디아인 결혼이주여성 5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캄보디아인 결혼이주여성은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3.2. 척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Cantrill(1965)의 척도(조완규, 1993, 재인용)와 양순미(2006a), 양순미 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의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¹⁾ 척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정일선(2004), 양순미와 임춘식, 오윤자(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매우 안 좋아졌다(1)'에서부터 '매

1)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온 이래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일차원과 다차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각 변수들의 개념에 내포된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된 점수를 통해 각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함축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척도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차원 척도의 경우, 동일한 척도라 할지라도 연구자나 척도가 이용되는 대상에 따라 하위요인이나 문항구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된 경향을 추론하는데 한계를 지닌다(양순미, 2008).

우 좋아졌다(5)'까지 5점 서열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활동이후에 생활만족도가 좋아진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경험여부를 묻는 척도 중 농업활동 및 취업활동의 참여행태, 요구 및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은 김이선 등(2008), 이순형 등(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활동의 내용 및 종류는 한국청소년 연구(2004)를 인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경험한 활동을 개방형으로 체크하도록 한 뒤에 분석과정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참여여부 등의 변수로 이용하였다. 지역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요구 및 애로사항은 김영희(2006), 이순형 등(2006)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향후 참여태도를 묻는 문항은 전재은(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각 유형별로 단일문항의 서열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전혀 참여안함'에서부터 '적극 참여함'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별로 사회참여 활동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생활수준과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와 유영주(2002)의 6점 Likert 척도를 이용 또는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기타 연령, 학력, 동거하는 가족원 등은 양순미와 유영주(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질문한 뒤 분석과정에서 재조합하여 활용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총 382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paired t-test, t-test, ANOVA, 카이자승 검증(X^2)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 및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평균거주기간은 일본이 133.30개월, 중국 78.56, 필리핀 70.52, 베트남 31.32, 캄보디아 15.76이었으며, 이는 2.68~3.97 점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된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일본이 41.71세, 중국이 35.04, 필리핀 33.95, 베트남 25.25, 캄보디아 24.51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 차이는 일본이 약 3.7세로써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는 약 18.5세로써 가장 컸다. 이것은 농촌지역의 중국·일본·필리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양순미, 2006a)와 유사한 양상으로써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 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한 수준으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거의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수준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보다 낮았으며, 중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촌지역의 중년기 일반 가정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중년기 일반가정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

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지한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은 캄보디아가 3.43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2.92로써 가장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데 친정국가의 생활수준이 비교준거로 작용한데서 비롯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농번기 농사일 참여시간은 평균 5.15~6.27시간으로써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참여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농한기 농사일 참여시간은 평균 2.66~3.83시간이었다. 가사일 참여시간은 필리핀 이주여성이 11.7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중국이 7.6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가족유형은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경우 2세대 핵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필리핀·베트남은 3세대 확대가족, 캄보디아는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3세대 확대가족의 비율이 39.73%, 2세대 핵가족이 35.34, 부부가 자녀없이 시부모를 모시는 유형이 14.25, 부부 단독가구유형이 8.22순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사-육아일 참여정도에 있어서, 가사와 육아를 모두 전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71.60%로써, 이들이 가사와 육아양육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 특성의 평균 및 빈도 분석

출신국가	내용	연령			학력		
		이주여성	남편	paired t-test	이주여성	남편	paired t-test
		M(S.D.)	M(S.D.)	M (S.E)	M(S.D.)	M(S.D.)	M (S.E)
중국	35.04(9.78)	44.87(7.79)	-11.67(.45) t값: -25.98***	3.75(1.17)	3.86(0.97)	0.22(.09) t값: 2.37*	
일본	41.71(5.46)	45.44(5.71)		4.68(0.87)	3.95(1.08)		
필리핀	33.95(6.76)	44.45(5.03)		4.93(1.28)	3.70(0.90)		
베트남	25.25(3.82)	42.60(5.68)		3.51(0.95)	4.00(0.84)		
캄보디아	24.51(3.89)	43.00(7.76)		3.15(0.97)	3.85(0.91)		
전체	32.41(9.09)	44.16(6.47)		4.09(1.25)	3.87(0.96)		
F값	63.35***	2.44*		19.43***	0.69		
출신국가	내용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수준	생활수준	농사일 시간		가사일 시간
					농번기	농한기	
		M(S.D.)	M(S.D.)	M(S.D.)	M(S.D.)	M(S.D.)	M(S.D.)
중국	78.56(53.85)	3.97(1.58)	3.06(1.05)	5.66(3.34)	2.66(2.35)	7.68(6.05)	
일본	133.30(49.87)	3.85(1.00)	2.92(1.04)	6.05(3.70)	2.74(1.59)	8.66(5.86)	
필리핀	70.52(41.37)	2.97(1.01)	3.24(1.04)	6.27(4.01)	3.83(2.87)	11.74(7.41)	
베트남	31.32(18.46)	2.74(0.96)	3.18(0.72)	5.95(3.28)	3.54(2.93)	9.88(5.93)	
캄보디아	15.76(10.56)	2.68(1.01)	3.43(0.95)	5.15(2.66)	2.91(1.90)	8.18(6.08)	
F값	86.87***	21.40***	2.59*	0.61	1.58	4.61***	
출신국가	내용	가족형태					
		부부	부부+자녀	3세대 확대가족	부부+시부모 (형제)	기타	계
		n(%)	n(%)	n(%)	n(%)	n(%)	n(%)
중국	10(2.74)	43(11.78)	25(6.85)	10(2.74)	1(0.27)	89(24.38)	
일본	1(0.27)	33(9.04)	34(9.32)	1(0.27)	4(1.10)	73(20.00)	
필리핀	6(1.64)	28(7.67)	29(7.95)	11(3.01)	1(0.27)	75(20.55)	
베트남	5(1.37)	18(4.93)	43(11.78)	15(4.11)	2(0.55)	83(22.74)	
캄보디아	8(2.19)	7(1.92)	14(3.84)	15(4.11)	1(0.27)	45(12.33)	
계	30(8.22)	129(35.34)	145(39.73)	52(14.25)	9(2.47)	365(100)	
X ²	59.32***						

내용 출신국가	가사 및 육아 전담 형태				
	가사& 육아전담	가사 보조, 육아 전담	육아 보조, 가사 전담	육아& 가사보조	계
통계	n(%)	n(%)	n(%)	n(%)	n(%)
중국	62(18.34)	4(1.18)	4(1.18)	10(2.96)	80(23.67)
일본	64(18.93)	1(0.30)	4(1.18)	2(0.59)	71(21.01)
필리핀	51(15.09)	7(2.07)	5(1.48)	5(1.48)	68(20.12)
베트남	40(11.83)	8(2.37)	6(1.78)	18(5.33)	72(21.30)
캄보디아	25(7.40)	10(2.96)	5(1.48)	7(2.07)	47(13.90)
계	242(71.60)	30(8.88)	24(7.09)	42(12.43)	338(100)
X^2	45.29***				

* $p < .05$, ** $p < .01$, *** $p < .001$

4.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경험 및 자격취득 실태

4.2.1.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경험 유무 및 내용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국가에서 농업활동 경험율은 베트남이 가장 높고 전체적으로 44.30%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 농업활동 경험율(양순미, 2009)도 베트남이 가장 높고 전체적으로 68.69%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출신국가 간 농업활동 경험 정도의 차이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따라서 친정국가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일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친정국가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율은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62.47%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참여, 일손돕기, 봉사활동, 캠페인 참여 등의 순서로 높았다. 한국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율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73.23%

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참여, 학습단체활동, 봉사활동, 일손돕기 순으로 높았다.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출신국가 간 지역사회활동 경험정도의 차이는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3〉).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국가에서 보다 한국에서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높은 것은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문화생활교육, 학습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26.77% 즉 1/4이상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교육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주류사회의 참여 및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친정국가에서 취업활동 경험은 일본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66.57%가 본국에서 취업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 취업활동 경험은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43.51%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취업상태를 분석한 연구(설동훈 등, 2006)결과인 31.10%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써 이는 본 연구가 한국거주기간동안 참여 경험을 조사한데서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출신국가 간 취업활동 경험정도의 차이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한편 친정국가에서의 취업활동경험내용은 회사원, 공장취업,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의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에서는 공장취업, 가게나 식당잡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그런데 농업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서 나타난 양상과는 달리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활동 경험은 한국에서 보다 친정국가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스스로가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취업현장에서 피동적으로 격리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두섭, 1998). 또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취업보다는 주요 생계수단이 되는 당면한 농업활동에 우선적으로 종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타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들 보다 취업 경험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영어를 구사하면서 원어민 강사활동을 하는 등 비교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넓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의 농업·지역사회·취업 활동 경험여부

	구분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n(%)	n(%)	n(%)	n(%)	n(%)	n(%)	
친정국가에서의 참여 경험	통계							
	출신국	중국	68(74.73)	23(25.27)	48(52.75)	43(47.25)	22(24.72)	67(75.28)
		일본	57(77.03)	17(22.97)	20(27.03)	54(72.97)	15(20.27)	59(79.73)
		필리핀	40(52.63)	36(47.37)	18(23.38)	59(76.62)	16(21.05)	60(78.95)
		베트남	20(24.10)	63(75.90)	34(40.00)	51(60.00)	47(55.95)	37(44.05)
		캄보디아	25(47.17)	28(52.83)	23(42.59)	31(57.41)	26(48.15)	28(51.85)
	계	210(55.70)	167(44.30)	143(37.53)	238(62.47)	126(33.43)	251(66.57)	
	X ²	62.44***		19.86***		38.43***		
한국에서의 참여 경험	통계							
	출신국	중국	31(34.07)	60(65.93)	27(29.67)	64(70.33)	48(53.33)	42(46.67)
		일본	29(39.19)	45(60.81)	11(14.86)	63(85.14)	39(52.70)	35(47.30)
		필리핀	23(29.87)	54(70.13)	15(19.48)	62(80.52)	26(34.21)	50(65.79)
		베트남	19(22.62)	65(77.38)	29(34.12)	56(65.88)	58(69.05)	26(30.95)
		캄보디아	17(31.48)	37(68.52)	20(37.04)	34(62.96)	42(79.25)	11(20.75)
	계	119(31.31)	261(68.69)	102(26.77)	279(73.23)	213(56.49)	164(43.51)	
	X ²	5.48***		13.07**		32.70***		

*p<.05, **p<.01, ***p<.001, %는 행간백분율을 의미함

〈표 3〉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경험한 농업·지역사회·취업 활동내용

친정국가에서 경험한 지역사회활동의 내용(n=238, 복수응답)													
구분	일손 돕기	구조, 구호 활동	교육 참여	캠페 인 운동	지역 사회 개발 운동	자연, 환경 보전 활동	전통 문화 보전 활동	교류 협력 활동	학습 단체 활동	통역 활동	봉사 활동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19 (3.08)	5 (0.81)	21 (3.41)	5 (0.81)	8 (1.30)	3 (0.49)	3 (0.49)	3 (0.49)	13 (2.11)	12 (1.95)	95 (15.42)	
	일본	12 (1.95)	17 (2.76)	25 (4.06)	13 (2.11)	7 (1.14)	8 (1.30)	2 (0.32)	5 (0.81)	2 (0.32)	8 (1.30)	145 (23.54)	
	필리핀	25 (4.06)	11 (1.79)	29 (4.71)	16 (2.60)	17 (2.76)	14 (2.27)	11 (1.79)	8 (1.30)	13 (2.11)	9 (1.46)	21 (3.41)	174 (28.25)
	베트남	23 (3.73)	11 (1.79)	23 (3.73)	15 (2.44)	11 (1.79)	14 (2.27)	5 (0.81)	7 (1.14)	14 (2.27)	5 (0.81)	5 (0.81)	133 (21.59)
	캄보디아	15 (2.24)	3 (0.49)	15 (2.24)	7 (1.14)	5 (0.81)	6 (0.97)	6 (0.97)	3 (0.49)	2 (0.32)	4 (0.65)	3 (0.49)	69 (11.20)
계	94 (15.25)	47 (7.63)	113 (18.34)	56 (9.10)	48 (7.80)	45 (7.31)	27 (4.38)	26 (4.22)	34 (5.52)	39 (6.33)	87 (14.12)	616 (100)	
한국에서 경험한 지역사회활동의 내용(n=279, 복수응답)													
출신국	중국	17 (2.15)	6 (0.76)	39 (4.92)	8 (1.01)	6 (0.76)	7 (0.88)	5 (0.63)	4 (0.51)	26 (3.28)	11 (1.39)	12 (1.52)	141 (17.80)
	일본	20 (2.53)	10 (1.26)	40 (5.05)	8 (1.01)	18 (2.27)	13 (1.64)	4 (0.51)	8 (1.01)	18 (2.27)	20 (2.53)	47 (5.93)	206 (26.01)
	필리핀	21 (2.65)	2 (0.25)	54 (6.82)	5 (0.63)	12 (1.52)	10 (1.26)	10 (1.26)	6 (0.76)	37 (4.67)	18 (2.27)	18 (2.27)	193 (24.37)
	베트남	14 (1.77)	6 (0.76)	43 (5.43)	6 (0.76)	10 (1.26)	11 (1.39)	4 (0.51)	1 (0.13)	36 (4.55)	4 (0.51)	8 (1.01)	143 (18.06)
	캄보디아	8 (1.01)	1 (0.13)	29 (3.66)	3 (0.38)	7 (0.88)	4 (0.51)	9 (1.14)	2 (0.25)	36 (4.55)	6 (0.76)	4 (0.51)	109 (13.76)
계	80 (10.10)	25 (3.16)	205 (25.88)	30 (3.79)	53 (6.69)	45 (5.68)	32 (4.04)	21 (2.65)	153 (19.32)	59 (7.45)	89 (11.24)	792 (100)	

친정국가에서 경험한 취업활동의 내용(n=251, 복수응답)									
구분	유치원 교사	초등 학교 교사	간호사	회사원	공장취업	학원강사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n(%)	
출신국	중국	10(3.53)	3(1.06)	2(0.71)	23(8.13)	21(7.42)	0(0.00)	22(7.77)	81(28.62)
	일본	3(1.06)	0(0.00)	11(3.88)	32(11.31)	8(2.83)	1(0.35)	8(2.83)	63(22.26)
	필리핀	6(2.12)	8(2.83)	2(0.71)	15(5.30)	23(8.13)	1(0.35)	16(5.65)	71(25.09)
	베트남	1(0.35)	0(0.00)	0(0.00)	19(6.72)	17(6.01)	0(0.00)	2(0.71)	39(13.79)
	캄보디아	0(0.00)	1(0.35)	0(0.00)	4(1.41)	16(5.65)	2(0.71)	6(2.12)	29(10.24)
계	20(7.06)	12(4.24)	15(5.30)	93(32.87)	85(30.04)	4(1.41)	54(19.08)	283(100)	
한국에서 경험한 취업활동의 내용(n=164, 복수응답)									
구분	학원 강사	가게나 식당 잡일	공장 취업	가사 도우미	노인 도우미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신국	중국	5(2.79)	12(6.70)	18(10.06)	0(0.00)	4(2.23)	9(5.03)	48(26.81)	
	일본	10(5.59)	8(4.47)	6(3.35)	0(0.00)	0(0.00)	12(6.70)	36(20.11)	
	필리핀	9(5.03)	5(2.79)	18(10.06)	1(0.56)	1(0.56)	19(10.61)	53(29.61)	
	베트남	0(0.00)	4(2.23)	8(4.47)	10(5.59)	3(1.68)	3(1.68)	28(15.65)	
	캄보디아	1(0.56)	5(2.79)	1(0.56)	4(2.23)	1(0.56)	2(1.12)	14(7.82)	
계	25(13.97)	34(18.98)	51(28.50)	15(8.38)	9(5.03)	45(25.14)	179(100)		

4.2.2.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자격취득 실태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4.80%²⁾가 친정국가에서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반면 35.20%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있어서 전체 응답 건수 중 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는 7.59%, 간호사와 요리사는 각각 3.54,

2) 복수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375명 중에 '없다'라고 응답한 243명에 해당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임. 추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명이 친정국가에서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강사 또는 컴퓨터 자격은 각각 3.29가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일본, 필리핀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보다 교사나 간호사 등의 전문자격 보유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응답자의 71.41%³⁾가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반면 28.59%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에 있어서 전체 응답건수 중 15.27%가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어민 강사 자격이 4.07, 컴퓨터 자격이 2.80, 요리사 자격이 2.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친정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비해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친정국가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친정국가에서 소지한 자격증(n=375, 복수응답)											
구분	교사 자격	간호사 자격	컴퓨터 자격	수지침 자격	미용사 자격	요리사 자격	학원강 사 자격	기타	없다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13 (3.29)	2 (0.51)	4 (1.01)	0 (0.00)	6 (1.52)	3 (0.76)	2 (0.51)	7 (1.77)	58 (14.68)	95 (24.05)
	일본	7 (1.77)	11 (2.78)	1 (0.25)	0 (0.00)	1 (0.25)	1 (0.25)	2 (0.51)	25 (6.33)	32 (8.10)	80 (20.25)
	필리 핀	8 (2.03)	1 (0.25)	4 (1.01)	0 (0.00)	1 (0.25)	7 (1.77)	5 (1.27)	14 (3.54)	38 (9.62)	78 (19.75)
	베트 남	1 (0.25)	0 (0.00)	3 (0.76)	0 (0.00)	1 (0.25)	2 (0.51)	3 (0.76)	8 (2.03)	69 (17.47)	87 (22.03)
	캄보 디아	1 (0.25)	0 (0.00)	1 (0.25)	2 (0.51)	3 (0.76)	1 (0.25)	1 (0.25)	0 (0.00)	46 (11.65)	55 (13.92)
	계	30 (7.59)	14 (3.54)	13 (3.29)	2 (0.51)	12 (3.04)	14 (3.54)	13 (3.29)	54 (13.67)	243 (61.53)	395 (100)

3) 복수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371명중에 '없다'라고 응답한 265명에 해당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임. 추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명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n=371, 복수응답)													
구분	운전 면허 자격	간호 사 자격	컴퓨터 자격	수지 침 자격	미용 사 자격	요리 사 자격	노인 요양 보호 자격	유치 원 교사 자격	원어 민 강사 자격	기타	없다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 국	중국	33 (8.40)	1 (0.25)	5 (1.27)	0 (0.00)	1 (0.25)	5 (1.27)	1 (0.25)	0 (0.00)	4 (1.02)	2 (0.51)	51 (12.98)	103 (26.21)
	일본	13 (3.31)	0 (0.00)	5 (1.27)	0 (0.00)	0 (0.00)	1 (0.25)	1 (0.25)	0 (0.00)	4 (1.02)	13 (3.31)	41 (10.43)	78 (19.85)
	필리핀	9 (2.29)	0 (0.00)	0 (0.00)	0 (0.00)	0 (0.00)	2 (0.51)	1 (0.25)	1 (0.25)	8 (2.04)	7 (1.78)	47 (11.96)	75 (19.08)
	베트남	4 (1.02)	0 (0.00)	1 (0.25)	0 (0.00)	0 (0.00)	1 (0.25)	0 (0.00)	0 (0.00)	0 (0.00)	2 (0.51)	7 (1.78)	84 (21.37)
	캄보디아	1 (0.25)	0 (0.00)	0 (0.00)	1 (0.25)	1 (0.25)	0 (0.00)	0 (0.00)	1 (0.25)	0 (0.00)	0 (0.00)	49 (12.47)	53 (13.49)
계	60 (15.27)	1 (0.25)	11 (2.80)	1 (0.25)	2 (0.51)	9 (2.29)	3 (0.76)	2 (0.51)	16 (4.07)	24 (6.11)	264 (67.18)	393 (100)	

4.3.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상의 애로사항과 지원요구

4.3.1.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한국에서의 활동상의 애로사항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로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농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집안일, 아이돌보기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31.58%가 이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농사일의 방법을 잘 몰라서 19.92, 농사 일이 힘들어서 18.42, 대가 낮고 생활이 어려워서 15.79,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9.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은 한국어 능력 부족이 33.77%로 가장 높으며, 자녀 육아문제 15.25, 참여방법의 이해부족 12.34, 활동에 대한 지식 및 능력 부족 9.74, 집안어른들의 눈치 보기 6.82, 참여자들 간 대인관계 6.17, 활동비용 문제 6.01, 농사일 지장초래 4.22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상의 애로사항은 한국어 능력부족이 28.23%로 가장 높으며, 자녀육아 문제 19.51, 활동에 대한 지식능력부족 13.24, 근무환경의 이해부족 9.76, 농사일의 지장초래 5.57, 집안어른들의 눈치 보기 5.57, 활동의욕 부족 4.53, 직장동료들과 관계 4.53, 고용자와 대인관계 3.8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이와 같은 결과는 이순형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이주여성들이 취업을 못하는 주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러서(31.2%), 자녀양육문제(31.2%)를 들고 있었다.

농업·지역사회·취업 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주요 항목들의 응답순위는 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별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자녀육아와 관련된 요인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다소 낮은 분포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들 이주여성들의 평균 한국 거주기간이 15.76개월로서 상대적으로 짧고 유 자녀율이 비교적 낮아서 자녀육아나 양육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는데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표 5> 한국에서 농업·지역사회·취업 활동상의 애로사항

(n=382, 복수응답)

		농업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농사일 방법을 몰라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집안 일, 아이 돌보기 같이 해야 되서	대가 낮고 생활 어려워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출신 국	중국	9(3.38)	11(4.14)	23(8.65)	9(3.38)	5(1.88)	1(0.38)	58(21.80)
	일본	8(3.01)	12(4.51)	12(4.51)	6(2.26)	3(1.13)	2(0.75)	43(16.17)
	필리핀	11(4.14)	8(3.01)	23(8.65)	8(3.01)	3(1.13)	4(1.50)	57(21.43)
	베트남	13(4.89)	7(2.63)	17(6.39)	17(6.39)	11(4.14)	3(1.13)	68(25.56)
	캄보디아	12(4.51)	11(4.14)	9(3.38)	2(0.75)	4(1.50)	2(0.75)	40(15.04)
계		53(19.92)	49(18.42)	84(31.58)	42(15.79)	26(9.78)	12(4.51)	266(100)

지역사회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한국어 능력 부족	활동 의욕 부족	참여 방법이 해부족	농사일 지장 초래	자녀 육아 문제	집안 어른들 눈치	활동에 대한지식, 능력부족	동료 와 대인 관계	활동 비용 문제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27 (4.38)	5 (0.81)	15 (2.44)	10 (1.62)	24 (3.90)	8 (1.30)	18 (2.92)	14 (2.27)	15 (2.44)	5 (0.81)	141 (22.89)
	일본	38 (6.17)	2 (0.32)	10 (1.62)	3 (0.49)	28 (4.55)	13 (2.11)	12 (1.95)	8 (1.30)	10 (1.62)	5 (0.81)	129 (20.94)
	필리 핀	51 (8.28)	4 (0.65)	18 (2.92)	2 (0.32)	12 (1.95)	12 (1.95)	7 (1.14)	9 (1.46)	7 (1.14)	5 (0.81)	127 (20.62)
	베트 남	61 (9.90)	2 (0.32)	15 (2.44)	7 (1.14)	20 (3.25)	5 (0.81)	14 (2.27)	3 (0.49)	2 (0.32)	1 (0.16)	130 (21.10)
	캄보 디아	31 (5.03)	5 (0.81)	18 (2.92)	4 (0.65)	10 (1.62)	4 (0.65)	9 (1.46)	4 (0.65)	3 (0.49)	1 (0.16)	89 (14.45)
	계	208 (33.77)	18 (2.92)	76 (12.34)	26 (4.22)	94 (15.25)	42 (6.82)	60 (9.74)	38 (6.17)	37 (6.01)	17 (2.76)	616 (100)
취업활동의 애로사항												
구분	한국어 능력 부족	활동 의욕 부족	근무 환경 이해 부족	농사일 지장 초래	자녀 육아 문제	집안 어른들 눈치	활동에 대한 지식 능력 부족	고용 자와 대인 관계	직장 동료 와 관계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15 (5.23)	6 (2.09)	7 (2.44)	4 (1.39)	15 (5.23)	3 (1.05)	13 (4.53)	4 (1.39)	5 (1.74)	4 (1.39)	76 (26.48)
	일본	14 (4.88)	1 (0.35)	4 (1.39)	3 (1.05)	17 (5.92)	3 (1.05)	11 (3.83)	2 (0.70)	0 (0.00)	4 (1.39)	59 (20.56)
	필리 핀	30 (10.45)	2 (0.70)	9 (3.14)	5 (1.74)	9 (3.14)	7 (2.44)	6 (2.09)	4 (1.39)	6 (2.09)	4 (1.39)	82 (28.57)
	베트 남	17 (5.92)	0 (0.00)	5 (1.74)	3 (1.05)	12 (4.18)	1 (0.35)	4 (1.39)	1 (0.35)	0 (0.00)	2 (0.70)	45 (15.68)
	캄보 디아	5 (1.74)	4 (1.39)	3 (1.05)	1 (0.35)	3 (1.05)	2 (0.70)	4 (1.39)	0 (0.00)	2 (0.70)	1 (0.35)	25 (8.71)
	계	81 (28.23)	13 (4.53)	28 (9.76)	16 (5.57)	56 (19.51)	16 (5.57)	38 (13.24)	11 (3.83)	13 (4.53)	15 (5.23)	287 (100)

4.3.2.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지원 요구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응답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은 농업자금지원이 전체 대상자 중 26.90%로써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농업관련 인터넷교육 17.24, 토지 및 시설지원 16.72, 농산물판매 및 유통교육 13.62, 농업기술 및 기계교육 11.55,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대한 교육요구가 전체 약 47%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이주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농기계 활용법, 유통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인정 및 지원요구는 실비지급이 18.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참여기회 확대제공 14.37, 특별 가산점 제도 도입 14.22, 무료건강 진단 13.80, 위험대비보험제도 도입 11.38, 물품 구입 할인혜택 8.9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이러한 경향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실비지급 보다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성과를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것은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적취득과정을 의식한데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되어진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요구는 한국어 교육이 32.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컴퓨터 20.38, 운전 16.45, 요리사 10.77, 미용사 및 기술사 교육 각 4.66, 유치원 교사 교육 4.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이주여성은 한국어 교육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한 반면 중국·일본 이주여성은 컴퓨터 교육을 가장 높은 비율로 요구하고 있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구내용이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표 6> 한국에서 농업·지역사회·취업 활동에 따른 지원 요구

(n=382, 복수응답)

농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구분	농업자금 지원	토지 및 시설지원	농업기술 및 기계 교육	농산물판매, 유통 교육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농업관련 인터넷교육	기타	계						
통계	n(%)	n(%)	n(%)	n(%)	n(%)	n(%)	n(%)	n(%)						
출신국	중국	44(7.59)	24(4.14)	14(2.41)	16(2.76)	5(0.86)	19(3.28)	14(2.41)	136(23.45)					
	일본	28(4.83)	13(2.24)	9(1.55)	16(2.76)	6(1.03)	22(3.79)	13(2.24)	107(18.45)					
	필리핀	34(5.86)	18(3.10)	16(2.76)	15(2.59)	5(0.86)	15(2.59)	11(1.90)	114(19.65)					
	베트남	30(5.17)	31(5.34)	15(2.59)	16(2.76)	7(1.21)	29(5.00)	8(1.38)	136(23.45)					
	캄보디아	20(3.45)	11(1.90)	13(2.24)	16(2.76)	6(1.03)	15(2.59)	6(1.03)	87(15.00)					
계	156(26.90)	97(16.72)	67(11.55)	79(13.62)	29(5.00)	100(17.24)	52(8.97)	580(100)						
지역사회활동에 따른 인정 및 지원 요구														
구분	참여 기회 제공	특별 가산	감사, 표창장 수여	연론 홍보 기회	위험 대비 보험 제도	활동 시간 저축 통한 환수 사용	물품 구입 인턴택	지속적 관심	실비 지급	상품권, 쿠폰 지급	기념품, 선물 제공	무료 건강진단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23 (3.27)	24 (3.41)	3 (0.43)	5 (0.71)	21 (2.99)	3 (0.43)	16 (2.28)	7 (1.00)	29 (4.13)	5 (0.71)	9 (1.28)	23 (3.27)	168 (23.90)
	일본	15 (2.13)	12 (1.71)	3 (0.43)	4 (0.57)	13 (1.85)	10 (1.42)	11 (1.56)	2 (0.28)	41 (5.83)	10 (1.42)	0 (0.00)	11 (1.56)	132 (18.78)
	필리핀	24 (3.41)	13 (1.85)	5 (0.71)	4 (0.57)	18 (2.56)	4 (0.57)	13 (1.85)	6 (0.85)	30 (4.27)	2 (0.28)	9 (1.28)	24 (3.41)	152 (21.62)
	베트남	27 (3.84)	35 (4.98)	5 (0.71)	3 (0.43)	11 (1.56)	6 (0.85)	13 (1.85)	3 (0.43)	18 (2.56)	2 (0.28)	3 (0.43)	28 (3.98)	154 (21.90)
	캄보디아	12 (1.71)	16 (2.28)	2 (0.28)	5 (0.71)	17 (2.42)	3 (0.43)	10 (1.42)	5 (0.71)	10 (1.42)	1 (0.14)	5 (0.71)	11 (1.56)	97 (13.80)
계	101 (14.37)	100 (14.22)	18 (2.56)	21 (2.99)	80 (11.38)	26 (3.70)	63 (8.96)	23 (3.27)	128 (18.21)	20 (2.84)	26 (3.70)	97 (13.80)	703 (100)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요구											
구분	운전교육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미용사교육	요리사교육	노인요양보호사교육	기술사교육	유치원교사교육	기타	계	
통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출신국	중국	27 (3.93)	34 (4.95)	44 (6.40)	7 (1.02)	17 (2.47)	8 (1.16)	12 (1.75)	3 (0.44)	8 (1.16)	160 (23.29)
	일본	16 (2.33)	33 (4.80)	42 (6.11)	2 (0.29)	6 (0.87)	10 (1.46)	13 (1.89)	6 (0.87)	1 (0.15)	129 (18.78)
	필리핀	29 (4.22)	53 (7.71)	12 (1.75)	8 (1.16)	12 (1.75)	3 (0.44)	1 (0.15)	17 (2.47)	5 (0.73)	140 (20.38)
	베트남	27 (3.93)	66 (9.61)	25 (3.64)	8 (1.16)	24 (3.49)	0 (0.00)	1 (0.15)	3 (0.44)	2 (0.29)	156 (22.70)
	캄보디아	14 (2.04)	40 (5.82)	17 (2.47)	7 (1.02)	15 (2.18)	1 (0.15)	5 (0.73)	2 (0.29)	1 (0.15)	102 (14.85)
	계	113 (16.45)	226 (32.90)	140 (20.38)	32 (4.66)	74 (10.77)	22 (3.20)	32 (4.66)	31 (4.51)	17 (2.47)	687 (100)

4.4. 농촌정착태도 및 생활만족 변화

4.4.1. 농촌정착 태도 및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83%가 계속 살면서 영농기반을 확장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떠나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다 39.83, 떠날 계획이다 18.34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표 7〉).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약 82%가 타의든 자의든 간에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6.79%가 돈벌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 26.06, 농사일이 힘들어서 13.38,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9.85,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없어서 8.45, 주변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때문 5.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그런데 평균 한국거주기간이 11년에서 6.5년인 일본, 중국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아이들 교육문제를 가장 높은 순으로 지적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보다 짧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은 돈벌기가 힘들기 때문에를 가장 높은 순으로 지적하였다.

4.4.2. 농촌생활만족 및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참여후 생활만족 변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생활만족도는 평균 3.31수준으로써 보통만족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사회참여활동 유형별로 활동참여 후에 생활만족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표 8〉), 농업활동의 경우 평균 3.26수준으로써 보통 수준을 약간 웃도는 차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의 순서로 높게 농업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사회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화 수준은 평균 3.61수준이며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높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화 수준은 평균 3.65수준이며 필리핀, 중국·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높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지역사회활동과 취업활동 참여 후 생활만족변화 수준은 농업활동 참여후의 변화수준 보다 높게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다른 사람과의 사교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

망(supporting networks)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Murphy, 2003),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케 함으로써(Lemon 등, 1972) 비롯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정착태도 및 이촌고려 사유

농촌정착 태도(n=349)										
구분	계속 살면서 영농기반을 확장할 것이다	떠나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다	떠날 계획이다	계						
통계	n(%)	n(%)	n(%)	n(%)						
출신국	중국	27(7.74)	40(11.46)	17(4.87)	84(24.07)					
	일본	22(6.30)	30(8.60)	13(3.72)	65(18.62)					
	필리핀	26(7.45)	28(8.02)	16(4.58)	70(20.06)					
	베트남	47(13.47)	22(6.30)	10(2.87)	79(22.64)					
	캄보디아	24(6.88)	19(5.44)	8(2.29)	51(14.61)					
계	146(41.83)	139(39.83)	64(18.34)	349(100)						
X ²	16.96*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n=71, 복수응답)										
내용	농촌 생활을 생각해 보지 않음	농사일 힘들어서	돈벌기 힘들어서	문화생활 즐길 수 없음	아이들 교육 문제	친하게 지낼 사람 없어서	주변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때문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	계	
통계량	n(%)	n(%)	n(%)	n(%)	n(%)	n(%)	n(%)	n(%)	n(%)	
출신국	중국	3(2.11)	3(2.11)	12(8.46)	4(2.82)	13(9.16)	2(1.41)	2(1.41)	4(2.82)	43(30.30)
	일본	0(0.00)	4(2.82)	6(4.23)	2(1.41)	10(7.05)	1(0.70)	0(0.00)	1(0.70)	24(16.91)
	필리핀	1(0.70)	4(2.82)	11(7.76)	3(2.11)	8(5.63)	1(0.70)	4(2.82)	3(2.11)	35(24.65)
	베트남	2(1.41)	5(3.52)	6(4.23)	1(0.70)	5(3.52)	2(1.41)	1(0.70)	3(2.11)	25(17.60)
	캄보디아	1(0.70)	3(2.11)	3(2.11)	2(1.41)	1(0.70)	1(0.70)	1(0.70)	3(2.11)	15(10.54)
계	7(4.92)	19(13.38)	38(26.79)	12(8.45)	37(26.06)	7(4.92)	8(5.63)	14(9.85)	142(100)	

*p<.05

〈표 8〉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만족도 및 사회참여활동 후 생활만족 변화

(n=382)

내 용 출신국가	농촌생활만족 M(S.D.)	사회참여활동 후 생활만족 변화		
		농업활동 M(S.D.)	지역사회활동 M(S.D.)	취업활동 M(S.D.)
	중국	3.19(0.99)	3.11(0.80)	3.55(0.80)
일본	3.06(0.83)	3.06(0.72)	3.54(0.75)	3.56(0.79)
필리핀	3.53(0.93)	3.31(1.03)	3.81(0.88)	3.91(0.80)
베트남	3.29(0.79)	3.38(1.02)	3.63(0.94)	3.52(0.87)
캄보디아	3.51(0.85)	3.46(0.75)	3.50(0.68)	3.45(0.82)
계	3.31(0.90)	3.26(0.98)	3.61(0.82)	3.65(0.82)
F값	3.66**	2.58*	1.49	1.82

* $p < .05$, ** $p < .01$

5. 요약 및 결론

이민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참여활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사회참여활동 실태나 이것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이들의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에 있어서 참여 실태와, 요구, 애로사항, 이들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 및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농업활동의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높

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집안일·아이돌보기 등의 활동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취학기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사·자녀양육·농업활동의 병행으로 역할이 과중(overload)된 이주여성들의 역할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돌보미 등의 서비스들이 확대지원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공교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 대학입학 특례적용을 위한 방안 등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적극 검토·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지적한 항목은 농사일 방법을 잘 몰라서이다. 또한 농업활동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항목은 농업관련 인터넷·농업기술 및 농기계 등의 농업교육지원이었다. 따라서 농업농촌이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중장기적인 지원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영농교육기술이나 농지임대 등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친정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것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농업활동과 지역사회활동 경험은 친정국가에서의 경험율보다 높았으나 취업활동에 있어서는 친정국가에서의 경험율이 한국에서의 경험율보다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보유한 교사, 간호사 등의 전문자격을 한국에서 검토, 일정기간 재훈련을 통해 인증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활동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변화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모두에서 보통 수준(3.0)을 넘는 방향에서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과소화·고령화된 농업농촌여건을 고려해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농업 및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농업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역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농촌생활만족도에는 향후 농업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태도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취업활동 참여태도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양순미(2009)의 연구를 통해서도 조명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1998).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 연구. 한국인구학, 21(2), 144-181.
- 김영희. (2006).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정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정해숙·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박정은.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6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06b).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5), 111-128.
- 양순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교재저술: 예측요인 효과분석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양순미. (2009). 농촌 다문화가족의 농업 및 사회참여 활동프로그램 개발연구.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보고서(농업공학부 편).
- 양순미,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 양순미,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 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양순미·임춘식·오윤자. (2008). 농촌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

- 보상적 가치관이 손자녀 양육 이후의 생활만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8(2), 145-178.
- 양순미·한춘희·양점남. (2009). 농촌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2), 253-284.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 (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조완규. (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정책연구보고서).
- 전재은. (200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선. (2004).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 방안-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청소년 연구.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 Berry, J.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eo Drie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223-239.
- Lemon, B.W., Bengtson, V. L. & Peterson, J.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 Murphy, H. (2003). Exploring lei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Some problematic issues in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Leisure studies*, 22, 37-50.
- Palmore, E. B. (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 Rowe, J. W. and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 Random House.